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

보도시점 11.13.(금) 09:30 배포 2026.11.13.(금) 07:30

신뢰받는 자본시장,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

✓ 이재명 대통령 주재 「**자본시장 정책 간담회**」를 개최하여 **11.13(금) 9시 30분**부터 **생중계 예정**
(자본시장 전문가·기업계, 국회·정부·유관기관 등 50여명 참석)

✓ 대외 충격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, **위기에 강한 자본시장**을 위한 **근본적 시장 체질개선**을 **흔들림 없이 추진**할 계획

✓ 이 과정에서 **시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**하기 위한 노력 지속

【관련 국정과제】 47.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

1 간담회 개요

정부는 11월 13일(금) **한국거래소**에서 **이재명 대통령 주재**로 「**자본시장 정책 간담회**」를 개최한다. 이번 간담회는 "**신뢰받는 자본시장,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**"를 주제로, **기업·시장·수급**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**한 단계 업그레이드**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간담회는 KTV 및 **유튜브**를 통해 **생중계**될 예정이다.

■ (**일시/장소**) '26.11.13(금) 09:30~11:10 / 한국거래소 본관 2층 홍보관

■ (**참석자**)
- (정부·유관기관) 경제부총리, 금융위원장, 중기부장관, 금감원장, 거래소 이사장
- (국회) 유동수 정무위원장, 박상혁 의원, 오기형 의원
- (전문가) 증권사·자산운용사·PEF협의회 등 금융투자업계, 한국벤처투자·산업은행·VC 등 기관투자자, 학계·연구원, 핀플루언서, M&A 전문가 등
- (기업계) 코스닥 기업, 코스닥협회, 벤처기업협회 등

■ (**진행**)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

2 간담회 목적 및 주요내용

[간담회 추진배경]

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그 **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**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. 자본시장을 **혁신 성장의 플랫폼**으로 설정하고 **❶신뢰, ❷주주보호, ❸혁신, ❹시장 접근성 제고**의 4대 축을 중심으로 **시장 체질개선**을 **일관되게 추진 중**이다.

최근 글로벌 AI·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부각,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,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**대외 요인**으로 **금융시장의 변동성**이 높아진 상황이다. 이에 정부는 **최고의 경각심**을 갖고 **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**하는 한편,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을 위해 **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**해 나갈 계획이다. 오늘 간담회는 **투자자, 기업 및 시장 전문가**와 **직접 소통**하며 향후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**현장의 목소리를 경청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[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자유토론]

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3명의 전문가가 **기업·시장·수급의 각 분야의 주요 쟁점**에 대해 발제한다. 먼저, **기업 측면**에서 자본시장연구원 **이효섭 연구위원**이 「**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**」를 주제로 발표한다. 이효섭 연구위원은 **코스피** PBR('26.10월 1.74)이 과거 대비 상승하였으나 아직 주요국(미국 5.67, 대만 5.55, 일본 2.03)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**추가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**하다고 진단하였다. 아울러,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,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,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넘어 **기업가치 재평가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**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 국내 기업의 가치가 낮은 이유로는 **주가 누르기 행태**, **지배주주의 M&A 프리미엄 독점**, **외부 견제 부재** 등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였다.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**▲저PBR 기업 명단공표**(11.2일 시행)의 실효성 강화, **▲기관투자자 주주관여 촉진**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, 5%룰 공동 보유자 요건 완화, **▲M&A 시장 정상화**를 위한 합병가액의 공정가액

산정 및 외부평가(12.9일 시행예정),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,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. 특히 **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**(50%+1주 vs 100%)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면서 **주주 보호 필요성과 M&A 시장 위축 우려**를 **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**단계적 접근**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, **상증세법 등 세제 보완**을 통해 **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**에 대한 **과세 필요성**을 강조하였다.

두 번째로, 시장 측면에서 **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**이 「**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**」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. 임형준 연구위원은 **코스닥 시장**이 VC **회수의 IPO 편중**에 따른 **조기 상장 문제**, **부실·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** 등으로 **부실·취약 기업군이 증가**함에 따라, **시장 신뢰가 저하**되고 **장기·기관투자가 위축**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. 그 해결책으로 임 연구위원은 우수한 고성장 기업이 출현·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**역동적인 "다산다사(多産多死)" 환경 조성**을 **정책목표**로 제시하였다. 구체적으로 ▲(IPO전) **M&A·세컨더리 시장 활성화**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, ▲(IPO 단계) 주관사·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**유연하되 책임 있는 시장진입** 유도 등을 제안하였으며, ▲(시장구조) **시장 세그먼트 분리**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 **신규 장기·기관자금을 유입**시키고 **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유인**을 낮출 수 있다는 **기대**와 **하위 세그먼트 소속 기업의 낙인효과**를 **우려**가 병존하는 만큼, **설계만큼이나 운영이 관건**임을 강조하였다.

마지막으로 수급 측면에서 「**증시의 장기·기관 중심 수요기반 확충**」에 대해 **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**이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. 김학균 센터장은 '26년중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와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하는 구도였다고 평가하였다. 한편, 가계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'25.3월말 20.2%에서 '26.6월말 34.4%로 크게 상승했고, 올해(11.5일 누적) 가계 자금의 증시 순유입이 147.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**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대**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하였다.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개인투자자가 "**집단적 성공의 경험**"을 쌓을 수 있어야 하며, 이를 위해 **낮은 배당성향을 개선**하고 **상장종목을 관리**하는 등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

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 또한 장기 수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▲ISA를 **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**으로 육성, ▲**공모펀드 활성화**와 **장기·적립식 투자교육 확대** 등을 제안하였다.

발제에 이어 **참석자들의 자유토론**이 진행된다. 참석자들은 **의무공개매수제도**, **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&A 활성화**, **상장폐지 강화**, **코스닥 세그먼트 분리** 등을 포함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.

[향후 계획]

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**다양한 현장의 의견**을 **반영**하여 **국민이 공감하는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**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현장에서 미처 발언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 제안을 통해 추가로 수렴할 예정으로, 앞으로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시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	(02-2100-2650)
		담당자	서기관	노소영	(02-2100-2651)
담당 부서 <공동>	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	책임자	과 장	김성진	(02-2100-2660)
		담당자	사무관	장지원	(02-2100-2661)
				정수종	(02-2100-2983)
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	김미정	(02-2100-2680)
		담당자	서기관	박보라	(02-2100-2681)
	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창기	(044-215-2750)
		담당자	서기관	김지민	(044-215-4251)
	중소기업벤처부 벤처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주화	(044-204-7570)
		담당자	서기관	김정훈	(044-204-7913)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박시문	(02-3145-7580)
		담당자	부국장	장재훈	(02-3145-7570)
	한국거래소 전략기획부	책임자	상 무	김정영	(051-662-2006)
		담당자	부 장	최훈철	(02-3774-416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